

## 7장 바로 앞에 서서 이적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와임을 선언하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으로 3:1-7:7의 내용은 결론을 맺는다. 이 부분에서 두드러진 주제는 여호와다. 모세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선언하자 모세는 순종하였다.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이끄셨다. 모세는 불신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7:5) 하는 말씀으로 설명된다.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는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와 이름이 널리 인정되는 것에 있다. 바로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두 여호와와 이름을 향한다. 여호와께서는 완강한 바로에게 심판을 내려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7:17).

### 1.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여호와 (7:1-7)

여호와께서는 무한한 자비 가운데서 모세의 말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주셨다.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7:1). 전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신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4:16) 지금은 더 강조되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아론은 선지자처럼 모세의 말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가능한 것이고,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행해지는 이적들로 인해 증명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지만, 또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듣지 않을 것도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세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모세는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낙담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듣지 않고 강압하게 될 것을 다시금 말씀하셨다(7:22; 8:19; 9:7, 12; 10:12; 8:15, 32; 9:34-35; 10:20).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그러한 상황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하였다(7:2, 4, 5). 여호와께서 바로를 치신 결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7:5).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출애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나아가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했을 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였다(5:2). 여호와께서는 열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첫째 재앙(7:17), 둘째 재앙(8:10), 셋째 재앙(8:22), 일곱째 재앙(9:14, 29), 여덟째 재앙(10:2), 열째 재앙(11:7)에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홍해에서 애굽의 마병을 수장시킬 때에도 이 말이 나온다(14:4, 18). 바로가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반대한 그 사실을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와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때 아론의 나이는 83세였고 모세는 80세였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일을 시작해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였다(신 34:7).

7장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 기대를 갖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짊을 주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자 모세에게 여호와와 이름을 들어서 대들었고, 모세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서 낙담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아론도 늙었고 믿음도 약한 자들이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합지졸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시면서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읽는다.

### 2. 재앙을 통한 심판과 구원 (7:8-11:10)

7:8부터는 모세가 바로와 두 번째로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신 이야기가 나온다. 여호와께서는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는데, 그 재앙들은 세 가지씩 세 그룹으로 나뉘고 마지막 열째 재앙에서 종합된다( $3 \times 3 + 1 = 10$ ). 피-개구리-이, 파리-생축-독종, 우박-메뚜기-흑암의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은 아침에 모세가 하숫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둘째는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경고한 후에 재앙이 임하며, 셋째는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한다.

처음 세 재앙에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도구로 사용되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없고, 둘째 세 재앙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재앙을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다. 마지막 세 재앙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두 백성 사이에 구별이 있다. 세 그룹의 재앙이 반복되는데, 뒤로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진다. 처음 세 재앙은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둘째 세 재앙은 파괴를 가져왔으며 마지막 세 재앙은 죽음을 가져왔다.

열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것은 가장 길게 서술되고 지금까지의 재앙의 결정판이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허용한다.

열 재앙에서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출애굽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향한다는 것을 반복되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 재앙	경고의 유무 / 때와 장소	지시 내용	행위자 / 지팡이	바로의 마음	여호와를 안다 / 말씀과 같다	여호와 섬김
1. 피	있음 / 아침 / 물가	바로에게 가라	아론 (술사의 흉내) / 지팡이	완악함	7:17 / 7:22	여호와 섬김
2. 개구리 떼	있음	바로에게 가라	아론 (술사의 흉내) / 지팡이	완악함	8:10 / 8:15	여호와 제사
3. 이			아론 (술사의 실패) / 지팡이	완악함	/ 8:19	
4. 파리 떼	있음 / 아침 / 물가	바로 앞에 서라	여호와	완악함	8:22 /	여호와 섬김 / 애굽에서
5. 생축의 죽음	있음	바로에게 가라	여호와	완악함		여호와 섬김
6. 악성 종기			모세 (술사의 고통)	완악함	/ 9:12	
7. 우박	있음 / 아침	바로 앞에 서라	모세	완악함 (바로와 죄 고백)	9:14, 29 / 9:35	여호와 섬김
8. 메뚜기 떼	있음	바로에게 가라 / 자녀에게 전하라	모세 / 지팡이	완악함 (바로와 죄 고백)	10:2 /	여호와 섬김 / 장년만
9. 흑암			모세 / 지팡이	완악함		장년과 아이만 (가족 제외)
10. 장자의 죽음	있음		여호와 / 지팡이	완악함		

### 3. 서곡 (7:8-13)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두 번째로 만났다. 첫 번째 만남에서 완승을 거두었으므로 이번에도 그들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적을 요구했을 것이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하면서 반대했던 바로가 이번에는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였다. 바로는 모세에게 그가 신의 보냄을 받았다는 ‘신임장’으로서의 이적을 보이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만나서 그들에게 신임장을 요구한 것 자체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바로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7:1).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와 독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코브라는 와제트(Wadjet)라는 하(下) 이집트의 여신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네케베트(Nekhabet)라는 상(上) 이집트의 여신을 상징한다. 바로의 왕관에 있는 코브라는, 바로를 대항하며 똑바로 쳐다보는 적이 있다면 그의 눈에 독을

쏘아서 바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이 지금 땅에 던져졌다. 물론 아론이 바로의 왕관을 벗겨서 던진 것은 아니고 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지만, 이것은 바로의 영광이 땅에 던져졌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 바로의 왕관에 있는 코브라가 모세와 아론의 눈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손에 의해서 땅에 던져진 것과 같이 되었다. 코브라 신이 바로를 보호하기는커녕 아론의 손에 의해 땅에 내동댕이쳐진 광경이 되었다.

아론의 이적을 보고 바로는 놀랐을 것이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체하였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박사’ ‘박수’ ‘술객’을 불렀다. 여러 단어가 함께 사용된 데서 우리는 바로의 당황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술객들이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술법’으로 각각 지팡이를 던져서 뱀들을 만들었다. 애굽 사람들은 코브라의 목근육을 압박하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근육을 푸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술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얼른 보면 아론이 만든 뱀은 하나고 그들이 만든 뱀은 더 많아서 바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패배는 금방 드러났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기 때문이다. 뱀이 된 상태에서 삼켰는지 아니면 다시 막대기가 되었는데 그 막대기들을 아론의 막대기가 삼켰는지 알 수 없다. 만일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더 놀라운 일이다. 뱀이 뱀을 삼키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막대기가 막대기를 삼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이제 누가 강한 자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다. 바로는 모세에게 패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혹시는 자기의 신하들도 뱀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른다. 죄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보고 다른 사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화려한 왕궁에서는 매우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의해 바로는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 버렸고, 술객들의 마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술객의 지팡이가 삼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의 의미는 홍해에서 절정에 이른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은 것을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15:12).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의 세력은 땅에 삼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지팡이를 통해서 빼앗기는 이적은 출애굽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다.

#### 4. 첫째 재앙 (7:14-25)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열 가지 재앙의 전조였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열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매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재앙을 내리는 일을 시행하였다.

##### 1) 여호와의 말씀 (7:14-18)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침에 바로에게 나가라고 하셨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데에는 하숫가가 적격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고 지금 행하실 이적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도록 하셨다. ‘친다’는 것은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다. 지팡이로 치는 순간에 나일강 전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이 핏빛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고 ‘피’로 바뀐다고 하였다. 그에 따른 세 가지 결과가 예고되

었다. (1)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면 물고기가 죽고, (2) 물고기가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며, (3) 비릿한 피 냄새뿐 아니라 죽은 고기의 썩은 냄새로 인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

물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치시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권세가 여호와께 속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와 사망과 생명의 주관자임을 나타내실 것이다.

## 2) 모세와 아론의 시행 (7:19-21)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여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하셨는데(7:17, 20), 19절에서는 ‘애굽의 물들, 하수들, 운하, 못, 모든 호수’를 언급하여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까지에도 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뿐 아니라 손을 들어서 다른 곳도 가리키도록 하셨다. 그 결과 나일강뿐 아니라 나일강의 지류, 운하, 못, 호수 등에 있는 물도 피로 바뀔 것이다.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나무와 돌’이다. 애굽 사람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고 나무 그릇으로 퍼서 마시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돌 그릇은 돌 항아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일강 뿐 아니라 운하와 못과 연못, 심지어 가정집에서 물을 담아 둔 돌 항아리의 물도 피로 변할 것이다. 집에서 식수로 사용할 물도 없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나타낸다. 문자 그대로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게 될 것이다.

## 3) 술객의 이적과 바로의 반응 (7:22-25)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은 애굽의 술객들도 행하였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했는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측할 필요는 없다. 애굽 술객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는 말에서 암시되는 것은 그들이 제한된 물을 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처럼 애굽 온 땅의 물을 피로 바꾸지는 못했고, 물을 조금 달라고 해서 그것을 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것은 문제를 푼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힘이 있다면 피가 된 물을 다시 물로 만들어 고기가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재앙을 흉내는 냈어도 그 재앙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애굽의 술객들은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을 흉내 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을 되돌릴 수 없었고, 또한 제한된 양의 물만 피로 바꿀 수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바로는 자기의 술객들도 동일한 일을 했다는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의 일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바로는 현실을 정확히 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는 자기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으나 그는 이레가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묵상과 실천:

####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른 뱀을 삼키는 이적의 의미

여호와께서는 완강한 바로에게 모세를 다시 보내시면서 그의 믿음을 분돈아 주셨다. 열 가지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들을 삼키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모세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시고 열 가지 재앙을 시행하게 하셨다.

#### 1. 뱀이 된 지팡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애굽 술사의 뱀을 잡아먹게 하였다. 이 이적은 앞으로 있을 열 재앙의 전조가 될 것이다.

‘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지칭한다. 하나는 ‘코브라’나 ‘불뱀’과 같은 작은 뱀이고(나하스), 다른 하나는 ‘악어’로 번역된 큰 것이다(탄닌). ‘탄닌’이라는 단어는 ‘뱀’으로 번역되기도 하였고(신 32:33; 시 91:13), “용”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며(시 74:13; 사 51:9), ‘악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겔 29:3). 용으로 번역된 시편 74:13과 이사야 51:9에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패배시킨 거대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됐다. ‘탄닌’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7:15에서 ‘나하스’(작은 뱀)로 말했기 때문에 문예상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좋다.

뱀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기에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면을 잘 나타낸 일이라 생각한다. ‘나하스’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뱀이고 ‘탄닌’은 큰 뱀이나 악어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에스겔 29:3과 32:3에서는 ‘탄닌’이 ‘악어’로 번역되었고, 교만한 애굽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됐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화려한 왕궁에서는 매우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의해서 바로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술객들의 마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술객의 지팡이가 삼킴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홍해에서 절정에 이른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었을 때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15:12).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의 세력은 삼킴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적은 출애굽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다(참조 4:20).

## 2. 삼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바로군의 군대를 삼켰을 때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삼킨 바 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부리던 바로의 세력이 삼킨 바 된 것은 세상 사람들 위에서 왕 노릇 하는 죽음에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고전 15:54-57).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삼킨 바 되었다. 삼킴을 당하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로의 권세를 삼키고 그의 군대를 땅으로 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세상의 왕 노릇 하는 죽음을 삼켜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선언하셨다.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지팡이 - 홍해 -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더 크고 능력 있게 나타나지만, 그 도구가 된 사람은 약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궁에 섰을 때 그들은 매우 초라했을 것이다. 애굽왕의 황금 왕관에 비하면 그들의 옷과 지팡이는 볼품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왕의 왕관에 있는 권세를 땅에 떨어뜨렸고, 그들의 지팡이로 삼켜 버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폐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세상 사람은 잘 갖추어지면 큰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입혀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함축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요 11:25). 지금의 생활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에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에 떨어진다. 어떤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현실에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와 같은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도 신령한 전투에 임할 수 있고, 괴물과 같은 세상 세력도 삼킬 수 있는 것이다.

## 7장 익힌 문제

1. 1)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론 앞에서 무엇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절)  
 2) 아론은 바론 앞에서 모세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절)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4절)  
 4)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까? (5절)  
 5) 모세와 아론이 바론 앞에서 말할 때에 그들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습니까? (7절)
2. 1)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셋째, 여섯째, 아홉째 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 열 재앙에 대한 서술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3. 1) 바론은 모세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요구하였고, 모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하나님의 명대로 바론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이적을 행하였을 때 아론의 지팡이는 애굽 숙객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4. 1)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첫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20절)  
 2)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타를 섬기게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여호타께서는 무엇을 알려신다고 하셨습니까? (17절)  
 3) 여호타께서 그분의 지팡이를 나일강을 쳤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17-18절)  
 4) 애굽의 숙객이 행한 것은 무엇이고, 바론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